

## 타갈로그어의 유형론적 논점들에 대하여

송경안 · 이은하\*

(전남대학교)

**Song, Kyung-An & Lee, Eun-Ha. (2018). On typological issues of the Tagalog language.**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26(4), 177-201.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ypological issu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Tagalog language through which we would like to contribute to the typological discussion of this language in Korea. Tagalog is one of the frequently cited and discussed languages in modern studies of typology. Important issues thereby include ergativity, subjecthood, basic word order, and voice, which are closely related to one another. Because of the characteristic features of this language, a new linguistic term was invented, i.e. 'the Philippine type clause,' indicating the difficulties in finding a clear solution to the issues. In this paper we examine these issues on the basis of the language data we collected through interviews with a native speaker of Tagalog. Through our analysis of this data, we reached the conclusion that Tagalog could basically be considered an ergative language with the VSO basic word order, and a rich voice system. Beside this, the 'copula' construction, the distinction between nouns and verbs, the development of articles, the tense system, and the relative prominence of aspect are also important typological issues of the Tagalog language. No copula or copula-like element is attested in this language. Contrary to previous discussions such as those by Himmelmann (1987) and Sasse (1993), there seems to be a clear-cut distinction between nouns and verbs in Tagalog: only the verbs are conjugated, but not the nouns. It is also noteworthy that Tagalog has no tense system and it is an aspect-prominent language, i.e. the aspect is generally realized in sentences, unlike the tense and mood.

**주제어(Key Words):** 타갈로그어(Tagalog), 능격언어(ergative language), 필리핀식 문장구조 (Philippine type clause), 계사구조(copula construction), 무관사 언어(article-less language), 상중심 언어(aspect-prominent)

---

\* 송경안: 제1저자, 이은하: 교신저자

## 1. 머리말

타갈로그어는 필리핀 지역에서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토착어이며 영어와 함께 이 지역의 공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이 언어는 그 독특한 특징들 때문에 언어유형론의 논의에서 자주 거론되는 언어인데 국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에 대한 논의가 드문 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언어유형론 연구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타갈로그어의 유형론적 논점들을 검토하고 이에 대해 본 연구 나름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며, 이밖에 타갈로그어의 중요한 유형론적 특징들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로써 본 연구는 미약하나마 국내의 언어유형론 연구 및 타갈로그어 연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언어학적 의의 이외에도 국내적 상황에서 중요한 사회·문화적 의미를 갖는다. 국제화 및 다문화 시대를 맞아 타자에 대한 이해 및 수용 그리고 사회통합이 오늘날 중요한 화두가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수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필리핀 출신 국내 거주자에 대한 이해와 수용은 사회·문화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들의 언어에 대한 이해는 이들에 대한 수용과 통합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며 여기에 본 연구의 또 다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타갈로그어와 관련하여 유형론적으로 중요한 논점이 되는 것은 능격성(ergativity), 주어성(subjecthood), 태(voice) 그리고 기본어순인데 이들은 서로 맞물려 있는 주제들이다. 언어유형론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필리핀 타입 구조’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한다. 본 논문은 우선 이러한 논점들에 대해 논의하고 나름대로의 가능한 의견을 제시할 것이다. 이어서 본 연구는 타갈로그어에 나타난 그 밖의 중요한 유형론적 특징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언어의 유형론적 분류는 여러 가지 문법범주를 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언어에 따라 중요한 이슈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타갈로그어의 중요한 유형론적 특징들로 명사/동사의 구분, 계사(copula) 구조, 관사의 발달 여부, 시제와 상의 발달 등이 있으며 본 연구는 이 주요 개별 주제들에 대해 따로 논의할 것이다.

이와 같은 논의를 위해 본 연구는 광주 지역에 거주하는 필리핀 출신 유학생을 정보 제공자(informant)로 활용하여 타갈로그어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 정보 제공자는 마닐라의 국립 필리핀 대학 출신 Elejedo Margeline이다.<sup>1)</sup> 인터뷰는 총 8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각 회의 인터뷰는 90분-120분 정도 소요되었다. 이 논문에서 별도의 출처표시가 없는 타갈로그어 예문은 이 인터뷰 자료에 근거한 것이며 본 연구가 타갈로그어의 유형론적 논점 및 특징들에 대해 제시한 중요한 결론들은 이 자료에 기초한 것이다.

1) 필자들은 소중한 시간을 내서 귀한 자료를 제공해 준 Margeline에게 깊이 감사한다. 자료의 해석 과정에서 나타날 수도 있는 오류는 연구자들의 책임이다. 정보 제공자가 한 사람에 국한되어 자료의 객관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익명의 심사위원의 의견에 공감하며 이 부분은 본 연구의 한계로 남기고자 한다.

## 2. 격표시와 능격성에 대한 기본 데이터

타갈로그어에 대한 중요한 유형론적 이슈들은 주어성(subjecthood), 태(voice) 그리고 기본어순 등인데 이는 이 언어의 격표시 및 능격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들 이슈들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제3-4장에서 하기로 하고 우선 이 장에서는 본 연구가 원어민 인터뷰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타갈로그어의 능격성과 관련한 기본적인 데이터를 제시하고 이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격에 대한 유형론적 논의를 위해 보통 문장의 핵심성분(core participant)을 (1)과 같이 S, A, P를 구분한다. 이 세 가지 요소들의 격표시 방식에 따라 언어의 유형을 크게 대격언어(accusative language)와 능격언어(ergative language)로 나눈다.<sup>2)</sup> 대격언어란 S와 A의 격표시 방법이 같은 언어를 말하며 우리 주변의 언어들이 대부분 여기에 속한다. 능격언어란 S와 P의 격표시 방법이 같은 언어를 말한다. (2)는 대격언어인 독일어 격표시의 예이고 (3)은 능격언어인 통가어(Tongan) 격표시의 예이다.

(2)의 독일어 예문에서는 관사의 어미로 격을 표시하는데 자동사 구문의 주어와 타동사 구문의 주어가 같은 격어미로 나타난다. (3)의 통가어 예문에서는 전치사로 격이 표시되는데 자동사 구문의 주어와 타동사 구문의 목적어가 동일한 전치사 *a*로 표시되고 타동사의 주어는 전치사 *le*로 표시되어 있다. 능격언어에서 S, P의 격을 절대격(absolutive)이라고 부르고 A의 격을 능격(ergative)이라고 한다.

### (1) S, A, P의 구분

S: 자동사 구문의 주어 (S: subject)

A: 타동사 구문의 주어 (A: agent)

P: 타동사 구문의 목적어 (P: patient)

### (2) 대격언어 독일어의 S, A, P 격표시

a. **Der** Mann schläft.

the.NOM man sleeps

‘The man is sleeping.’

b. **Der** Mann liebt **die** Frau.

the.NOM man loves the.ACC woman.

‘The man loves the woman.’

### (3) 능격언어 통가어의 S, A, P 격표시

a. Na'e lea 'a Tolu.

2) 이에 대한 자세한 것은 Plank(ed.)(1979), Dixon(1994), Palancar(2009), 송경안(2008) 참조.

- Past speak ABS Tolu  
 'Tolu spoke.'
- b. Na'e tāmate'i 'e Tēvita 'a Kōlaiate.  
 PAST kill ERG David ABS Goliath  
 'David killed Goliath.'

(Churchward, 1953, pp. 67-68; 송경안, 2008, p. 24 재인용)

본 연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타갈로그어는 능격언어적 성격을 강하게 드러낸다. 이 언어는 고유명사, 보통명사, 대명사가 각각 다른 방식으로 격을 표시하는데 두 가지 명사는 전치사 방식을 취하고 대명사는 어형변화 방식을 취한다. 타갈로그어는 이 세 가지 명사류의 격표시에서 모두 (3)과 같은 능격언어적 특징을 보이고 있다. 먼저 자동사 구문과 타동사 구문에서 고유명사 격표시의 예를 보면 (4-5)와 같다. 고유명사는 *ni*, *si*, *kay* 등의 전치사를 격표지로 취한다(De Vos, 2011). (4a,b)의 자동사 구문에서 주어(S) *John*은 이 가운데 *si*를 격표지로 하고 있는데, (5a,b)의 타동사 구문에서는 목적어(P)에 해당하는 *Mary*가 같은 격표지를 취하고 있다. 타동사 구문의 주어는 전치사 *ni*로 표시된다.

(4) 타갈로그어 고유명사의 S(자동사 주어) 격표시

- a. Natutulog **si** John  
 sleeps CASE\_1 John  
 'John is sleeping.'
- b. Nahulog **si** John  
 fell down CASE\_1 John  
 'John fell down.'

(5) 타갈로그어 고유명사의 A(행동주), P(피동주) 격표시

- a. Mahal **ni** John **si** Mary.  
 loves CASE\_2 John CASE\_1 Mary.  
 'John loves Mary.'
- b. Kinatagpo **ni** John **si** Mary.  
 met CASE\_2 John CASE\_1 Mary.  
 'John met Mary.'

보통명사는 *ng*, *ang*, *sa* 등의<sup>3)</sup> 전치사를 격표지로 취한다(De Vos, 2011). (6a,b)의 자동

3) 'ng'는 /naŋ/으로 발음한다.

사 구문에서 주어(S) *lalaki*(‘boy’)는 전치사 *ang*을 격표지로 하고 있는데, (7a,b)의 타동사 구문에서는 목적어(P)에 해당하는 *babae*(‘girl’)가 같은 격표지를 취하고 있다. 이 타동사 구문에서 주어는 전치사 *ng*으로 표시되었다. 이러한 고유명사와 보통명사 S, A, P의 격표지를 정리하면 [표1]과 같다.

(6) 타갈로그어 보통명사의 S(자동사 주어) 격표시

a. Natutulog **ang** lalaki.  
 sleeps CASE\_1 boy  
 ‘The boy sleeps.’

b. Nahulog **ang** lalaki.  
 fell down CASE\_1 boy  
 ‘The boy fell down.’

(7) 타갈로그어 보통명사의 A(행동주), P(피동주) 격표시

a. Mahal **ng** lalaki **ang** babae.  
 loves CASE\_2 boy CASE\_1 girl  
 ‘The boy loves the girl.’

b. Kinatagpo **ng** lalaki **ang** babae.  
 met CASE\_2 boy CASE\_1 girl  
 ‘The boy met the girl.’

타갈로그어 대명사는 어형변화를 통해 S, A, P의 격표시를 하며 인칭과 수에 따라 형태가 다르다. (8a-c)에서 보는 것처럼 1,2,3인칭 단수의 S 형태는 각각 *ako*(‘I’), *ikaw*(‘you’), *siya* (‘he/she’)이다.<sup>4)</sup> (9)의 예문에서 이들의 A의 형태는 각각 *ko*(‘I’), *mo*(‘you’), *niya* (‘he/she’) 이고, P의 형태는 *ako*(‘me’), *ikaw*(‘you’), *siya*(‘him/her’)로서 이 P의 형태가 (8)의 S의 형태와 동일하다. 1,2,3인칭 단수 대명사의 S, A, P의 형태를 표로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1. 타갈로그어 고유명사와 보통명사의 S, A, P 표지

	S	A	P
고유명사	si	ni	kay
보통명사	ang	ng	sa

4) 타갈로그어는 3인칭 대명사에서 남성과 여성의 구별이 없다.

## (8) 타갈로그어 대명사의 S(자동사 주어) 격표시

a. Nahulog **ako**.

fell down I

'I fell down.'

b. Nahulog **ikaw**.

fell down you

'You fell down.'

c. Nahulog **siya**.

fell down he

'He fell down.'

## (9) 타갈로그어 대명사의 A(행동주), P(피동주) 격표시

a. Mahal **mo ako**.

love you me.

'You love me.'

b. Mahal **ko ikaw**.

love I you

'I love you.'

c. Mahal **ko siya**.

love I him

'I love him.'

d. Mahal **niya ako**.

love he me

'He loves me.'

표 2. 타갈로그어 단수 인칭대명사의 S, A, P의 형태

	S	A	P
1.SG	ako	ko	ako
2.SG	ikaw	mo	ikaw
3.SG	siya	niya	siya

위 세 가지 명사류가 한 문장에 섞여서 나타날 때도 격표시는 위의 원칙을 따라간다(예문 (10) 참조). (10a,b)는 고유명사와 보통명사가 함께 나타나는 예문이며 이 두 가지 명사류는 그 기능에 따라 위 예문과 [표1]에서 본 전치사들을 그대로 격표지로 취하고 있다. (10c,d)는

대명사와 보통명사가 함께 나타나는 예문이며 여기에서도 역시 두 가지 명사류가 기능에 따라 위 예문과 [표1], [표2]에서 본 전치사 및 변화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10c,d)에서 한 가지 특기할 것이 있다면 어순이다. 즉 (10d)에서 목적어가 주어 앞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는 ‘대명사와 명사가 나란히 있을 경우 기능과는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대명사가 앞에 온다.’는 어순 규칙을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sup>5)</sup>

(10) 타갈로그어 명사류가 섞여서 나타나는 예문

- a. Kinatagpo **ni** John **ang** babae.  
 met A John S/P girl.  
 ‘John met the girl.’
- b. Kinatagpo **ng** lalaki **si** Jane.  
 met A boy S/P Jane.  
 ‘The boy met Jane.’
- c. Kinatagpo **niya ang** babae.  
 met A S/P girl.  
 ‘He met the girl.’
- d. Kinatagpo **siya ng** lalaki.  
 met S/P A boy  
 ‘The boy met him.’

이상의 데이터를 보면 타갈로그어는 능격언어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현대 격의 유형론에 대한 고전서라고 할 Blake(1994, p. 89, 190)는 타갈로그어를 능격언어로 보고 있으며 Gerdts(1988), Payne(1982) 등도 이와 같은 입장이다(Andrew, 2007, p. 205; Kroeger, 1993, p. 1 참조). 그러나 타갈로그어를 조금 더 들여다 보면 문제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이에 대한 자세한 것은 다음 제3장에서 논의한다.

### 3. 필리핀식 구조와 태의 문제

위에서 본 타갈로그어의 ‘능격성’은 아래 예문 (11)에서 심각한 도전을 받는다. 의미적으로 볼 때 (11)의 두 문장에서 모두 *titser*(‘teacher’)가 주어이고 *dyaryo*(‘newspaper’)는 목적어이다. 위 제2장의 문장구조대로라면 (11a)만 좋은 문장이고 (11b)는 비문이 되어야 한다.

5) 이러한 어순 규칙은 독일어에서도 관찰된다(송경안, 2011, p. 254) 참조.

그러나 타갈로그어에서 (11b)도 아주 자연스러운 문장이다. 즉 제2장의 논의에 따르면 (6a,b)의 자동사의 주어 S가 (11a)와 같이 타동사의 목적어와 격표지가 동일해야 한다. 논의의 편의상 (6b)를 (12)에 반복한다. 그런데 (11b)는 두 명사의 격표시가 (11a)와 반대로 되어 있으며 ‘능력성’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구조이다.

(11) 타갈로그어의 2가지 상이한 격표시(Schachter & Otones, 1972, p. 69)

a. Binabasa      **ng**            titser      **ang**            dyaryo.  
is reading      CASE\_2      teacher      CASE\_1      newspaper  
‘The teacher is reading the newspaper.’

b. Bumabasa      **ng**            dyaryo      **ang**            titser.  
is reading      CASE\_2      newspaper      CASE\_1      teacher  
‘The teacher is reading a newspaper.’

(12) 타갈로그어 보통명사 S의 격표시 (= 6b)

Nahulog      **ang**            lalaki.  
fell down      CASE\_1      boy  
‘The boy fell down.’

(11a,b)를 자세히 보면 형태·통사적으로 (13)과 같이 3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 두 문장 사이에 이러한 형태·통사적 차이는 영어 번역문에 나타난 미세한 의미적 차이 때문에 생긴 것이다. 번역문의 *newspaper* 앞에 붙은 정관사와 부정관사의 차이이다. 우선 격표시를 보면 (11a)는 능력성을 유지하고 있는데 (11b)에서는 자동사의 주어(S)와 타동사의 주어(A)가 같은 격표시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오히려 우리에게 익숙한 한국어, 영어, 독일어와 같은 대격언어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2)의 독일어 예문 참조).

(13) a. 두 명사의 격표시가 반대로 되어 있다.

b. 두 명사의 위치가 뒤바뀌어 있다.

c. 동사의 형태가 다르다.

대격언어의 특징을 보이고 있는 (11b)의 영어 번역문에서는 목적어 *dyaryo*(‘*newspaper*’) 앞에 부정관사가 붙었다고 했는데 이러한 목적어의 비한정성에 따른 격표지의 변화는 보통명사이외에 다른 명사류, 즉 고유명사와 인칭대명사 행동주(agent; A)에서도 나타난다((14) 참조). (14a)에서는 고유명사 *Alfija*가 주어이고 목적어 *artikulo*(‘*article*’)가 비한정 명사인데 이 문장에서 주어, 즉 행동주(A)가 자동사 구문 (4a,b)의 주어(S)와 동일한 격표지를 취하고 있다. (14b)에서는 대명사 *ako*가 주어이고 목적어 *bigas*가 비한정 명사이다. 이 문



장에서도 역시 행동주(A)가 자동사 구문 (8a)의 주어(S)와 동일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14a,b) 문장이 모두 격표시에서 대격언어의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11a,b), (14a)와 비교할 때 (14b)에서 명사류의 위치가 다른 것은 이 문장에 대명사가 쓰였기 때문이다 ((10c,d)의 어순 참조).

(14) 타갈로그어 목적어의 비한정성에 따른 격표지의 변화

a. Nagsulat ng artikulo si Alfija.  
wrote CASE\_2 article CASE\_1 Alfija  
'Alfija wrote an article.'

b. Bumili ako ng bigas.  
bought I CASE\_2 rice  
'I bought some rice.' (Schachter & Otones, 1972, p. 80)

이상과 같이 자연스러운 타갈로그어 문장이지만 (11a)와 (12)를 보면 능격언어식 격표시(ergative marking)가 되어 있고, (11b)와 (12), (4b)와 (14a) 그리고 (8a)와 (14b)를 보면 대격언어식 격표시(accusative marking)가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대격언어와 능격언어를 구분하는 언어유형론의 입장에서 보면 타갈로그어는 두 가지 특징을 모두 보이는 독특한 유형의 언어이며 언어유형론은 이를 '필리핀식 구조'(Philippine type structure)라고 부른다 (Siewierska, 1984, p. 79-85; Andrew, 2007, p. 202- 211).<sup>6)</sup> (11)-(12)에서 S, A, P의 격표시와 관련해서 보면 *ang*은 이 세 가지 범주에 모두 쓰일 수 있고 *ng*도 타동사의 주어와 목적어에 두루 쓰일 수 있다. S, A, P의 격표지가 특별히 정해진 것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이다. Comrie(2018)은 이러한 핵심성분의 격표시 방식을 영어, 중국어의 경우와 함께 중립적 격표시(neutral alignment of case marking)라고 불렀다.

그러나 영어, 중국어, 타갈로그어 핵심성분의 격표시 방법을 동일하게 보는 Comrie(2018)의 시각은 무리인 것으로 보인다. 타갈로그어 핵심성분의 격표시를 영어나 중국어와 같이 중립적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영어와 중국어는 핵심성분의 형태적 격표지가 전혀 없다. 이에 반해 타갈로그어는 분명한 형태적 표지가 있고 이들은 문맥에 따라 S, A, P를 표시하는 것이다.

목적어의 한정성 여부가 타갈로그어에서 (13)과 같은 많은 형태·통사적 차이를 가져오는 데 이는 이 언어의 일반적인 문장구성 방법과 관련이 있다. 즉 이 언어의 문장구성은 주제/

6) '필리핀식 구조'에 대한 논의는 Schachter(1976, 1977)에서 시작되었다(Andrew, 2007, p. 202). '필리핀식 문장구조'(structure of Philippine clause)라고 부르기도 하며 이러한 구조는 타갈로그어뿐만 아니라 필리핀 주변과 호주 지역에 걸친 언어들(Austronesian)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Siewierska, 1984, p. 85).

평언(topic/comment) 구조를 바탕으로 하며 명사류 앞에 붙는 기능표지는 이와 연관이 있다(Schachter, 1972, 1976, 1977 참조). De Vos(2011)는 이를 POD(point of departure)와 NEWS로 구분하였다. 이에 따르면 *ang/si*는 주제표지이며 *ng/mi*는 평언부의 명사에 붙는 표지이다. 주어/목적어에 따라 표지가 달라진 것이 아니고 주제/평언에 따라 표지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타갈로그어의 이러한 문장구성에서 원칙적으로 평언(comment/NEWS)이 앞에 오며 주제(topic/POD)가 뒤로 간다. 위 (11a,b)의 차이나 (14)의 기능표시 및 어순은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된다. Li & Thompson(1976)의 개념으로 하자면 타갈로그어는 주제중심(topic-prominent) 언어에 속한다.

‘주제중심 언어’라는 개념 역시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Kroeger(1993)같은 생성론자들은 다양한 통사적 실험을 통해 *ang/si*가 주어표지라고 주장한다. 생성통사론적인 접근은 언어유형론적인 접근과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생성통사론에서는 ‘주제중심’이라는 개념을 효과적으로 기술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유형론의 입장에서 *ang/si*를 주제표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틀에서 (4)-(9) 예문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타갈로그어 원어민에게 해당 영어 예문을 주고 중립적인 타갈로그어 문장으로 바꾸어 보라고 하면 (4)-(9)와 같이 표현한다. 앞서 말한 주제/평언 구조에 따르면 (4)-(9)에서 목적어가 주제가 되고 주어는 평언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일반적인 언어학적 상식과 맞지 않다. 문장을 크게 주부와 술부로 나눌 때 주어가 기본적으로 주제가 되고 목적어를 포함한 술부가 평언이기 때문이다. 이는 POD/NEWS의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특별한 일이 없는 경우 이야기의 출발점(POD)은 당연히 목적어가 아니라 주어일 것이다. 어쨌든 현상적으로 (4)-(9)를 타갈로그어의 기본 문장구조로 보아야 할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이 언어는 능격구조를 기본적인 격구조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때 절대격(absolutive) 표지 *ang/si*가 여러 가지 다른 명사와 결합하면서 특수한 통사적, 화용론적 기능을 갖는다고 하겠다. 이러한 상황은 아래 예문 (15)에 잘 나타나 있다.

언어유형론에서 타갈로그어 혹은 필리핀식 문장구조와 관련해서 빼놓을 수 없는 주제가 태(voice)이다. 보통 능격언어는 대격언어의 수동태에 대응되는 구조로 역수동태(antipassive)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타갈로그어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 즉 타갈로그어에는 수동태나 역수동태라고 볼만한 구조가 없고 (15)와 같이 절대격 표지 *ang/si*가 여러 가지 명사에 붙어 초점을 바꾸어 주면서 태와 비슷한 기능을 한 것으로 보인다(Schachter, 1977; Siewierska, 1984, p. 80; Andrew, 2007, p. 203).

(15)에서 명사 앞에 나타난 *ang, ng, sa, para* 등은 전치사로서 명사 앞에 위치하면서 해당 명사의 기능을 표시한다. 이 문장에는 명사가 4개 쓰였고 초점표시<sup>8)</sup> *ang*이 이 4개의 명사에 모두 붙을 수 있는데 그때마다 문두에 위치하는 동사의 형태가 달라진다.

7) 역수동태에 대한 자세한 것은 Dixon(1994, p. 146-152), Keenan & Dryer(2007, p. 359) 참조.

8) Andrew(2007, p. 200, 203)에 따라 *ang*을 초점(focus) 표시라고 부르겠다.

(15) 타갈로그어의 필리핀식 문장구조의 예(Andrew, 2007, p. 203)<sup>9)</sup>

- a. mag-a-alis            ang babae   ng   bigas sa   sako para sa   bata.  
 AP-FUT-take.out   PIV woman OBJ   rice   DIR   sack   BEN   child  
 ‘The woman will take some rice out of the sack for the child.’
- b. a-alis-in            ng babae   ang   bigas sa   sako para sa   bata.  
 FUT-take.out-OP   ACT woman PIV   rice   DIR   sack   BEN   child  
 ‘The woman will take some rice out of the sack for the child.’
- c. a-alis-an            ng babae   ng   bigas ang   sako para sa   bata.  
 FUT-take.out-DP   ACT woman OBJ   rice PIV   sack   BEN   child  
 ‘The woman will take some rice out of the sack for the child.’
- d. ipag-a-alis            ng babae   ng   bigas sa   sako ang   bata.  
 BP-FUT-take.out   ACT woman OBJ   rice DIR   sack PIV   child  
 ‘The woman will take some rice out of the sack for the child.’

(13)과 (15)의 현상을 정리해 보면 기능표지 *ang*이 어느 명사에 붙느냐에 따라 1) 동사의 형태가 달라지고, 2) 문장 안에 있는 명사들의 격표시가 달라지며, 3) 어순이 바뀌기도 한다. 이 3가지 변화를 자세히 보면 대격언어의 능동태/수동태 변화와 아주 흡사하다. 앞서 언급한 대로 타갈로그어에는 수동태나 역수동태가 따로 없고 (11), (15)와 같은 형식의 변화만 있는데 태와 관련하여 학자에 따라 이러한 변화에 대한 의견이 다르다. 처음에 이 예문을 제시한 Schachter(1977)는 *ang*을 단순한 초점표시로 보았고 동사변화도 단순히 이와 관련된 것으로 보았다. 이는 타갈로그어에서 수동태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다(Siewierska, 1984, p. 81). 수동태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한 Siewierska(2005, p. 434)도 타갈로그어를 무수동태 언어로 분류하였다. 이에 따르면 많은 오스트로네시아 언어들이 이 유형에 속한다.

Perlmutter & Postal(1983)이나 Keenan & Dryer(2007) 등은 이와 다른 입장이다. 이들은 *ang*을 주어표지로 보고 주어에 따라 동사형태가 변화하고 있으므로 타갈로그어에 오히려 다양한 수동태가 발달해 있다고 본다(Keenan & Dryer, 2007, p. 360 참조).<sup>10)</sup> Kroeger (1993)도 *ang*을 주어표지로 간주하고 타갈로그어에 다양한 태가 발달한 것으로 본다.<sup>11)</sup>

(11)과 (15)의 동일한 현상을 두고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나누어지고 있다. 피동주

9) ACT: actor, AP: actor pivot, BEN: benefactive, BP: benefactive pivot, DIR: directional, DP: directional pivot, FUT: future, OBJ: object, OP: object pivot, PIV: pivot. 타갈로그어는 시제언어가 아닌데 Andrew (2007)는 ‘미래(future)’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10) (8a)는 능동태 문장이고 (8b-d)는 모두 수동태 문장이라고 본다.

11) Kroeger(1993, p. 13)는 ‘rich voice system’이라고 하였다.

(patient)가 주어로 오면서 문장구조가 달라지는 대격언어의 수동태와 비교하면 타갈로그어는 무수동태 언어에 해당할 것이다. (15)에서 (15b)의 구조만을 따로 구분해서 수동태라고 부를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언어에 태의 구분이 전혀 없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일 것이다. 이는 물론 태의 정의와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이며 사실과 비사실의 문제라기보다는 현상을 보는 관점의 문제이며 해석의 문제라고 보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Quirk et al.(1985)은 태를 ‘내용을 바꾸지 않으면서 동작을 2가지 관점에서 보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15)에서 *ang*이 위치를 바꾸어가며 여러 명사에 붙고 있는데 이는 ‘사건을 보는 관점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15)에서는 또 이러한 기능적 변화에 곁들여 태의 변화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동사형태의 변화가 수반된다. 이 구문들 사이에 나타나는 이 같은 2가지 변화를 감안하면 우리는 이를 태의 변화라고 할 수 있으며 타갈로그어에 다양한 태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기에 꼭 ‘수동태’라는 용어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며 *ang*의 기능에 대해서도 꼭 어느 한 쪽을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주어표지이든 초점표지이든 태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여러 가지 명사로 옮겨 다닐 수 있고, 그때 마다 동사의 형태가 달라지며, 다른 명사의 표지도 함께 달라진다는 점이다.

#### 4. 기본어순

타갈로그어의 기본어순은 위에서 논의한 2가지 논점들과 연장선상에 있는 주제이다. 타갈로그어에서 어느 것을 주어로 볼 것인가에 따라 기본어순에 대한 결론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기본어순이란 타동사 구문을 중심으로 문장의 핵심성분이라고 할 수 있는 주어(S), 동사(V), 목적어(O)의 위치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SVO, SOV, VSO의 3가지를 구분하며 드물게 VOS 어순도 관찰된다. 타갈로그어의 기본어순은 보통 VSO로 본다(윤경원, 2012, p. 316; Dryer, 2005/2018; 진남택·손재현 역, 2013, p. 225 참조). 그러나 이는 타갈로그어에서 주어가 무엇이냐 하는 문제와 얽혀 있기 때문에 간단히 결론지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앞서 본 관련 예문을 (16)에 반복한다.

- (16) a. Nahulog      ang      lalaki. (= 6b)  
       fell down    CASE\_1    boy  
       ‘The boy fell down.’
- b. Kinatagpo    ng      lalaki    ang      babae. (= 7b)  
       met          CASE\_2    boy      CASE\_1    girl  
       ‘The boy met the girl.’

c. Bumabasa ng dyaryo ang titser. (= 11b)  
 is reading CASE\_2 newspaper CASE\_1 teacher  
 ‘The teacher is reading a newspaper.’

자동사 구문에서 주어를 찾는 것은 물론 문제될 것이 없고, 타동사 구문에서 어느 것이 주어인가에 대해서는 (17)과 같이 3가지 입장이 있다. 첫째, 타갈로그어를 주제중심 언어로 보고 주어가 없다는 입장이다. 타갈로그어 논의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Schachter(1976, 1977, 1996)가 여기에 속한다. 이러한 틀에서는 S, O, V의 순서, 즉 기본어순에 대해 논할 수가 없다. 이 경우 De Vos(2011) 처럼 [동사 > NEWS > POD] 식의 기본어순은 이야기할 수 있겠다.

(17) 타동사 구문 주어에 대한 3가지 입장

- a. 주제/평언 구조로 보는 입장
- b. 능격구조로 보는 입장
- c. 대격구조로 보는 입장

(17b)는 (16b)의 구조를 목적어(P)가 자동사의 주어(S)와 동일한 격표지를 갖는 능격구조로 보고 *lalaki*(‘boy’)를 주어로 인정하는 입장이다. 이 경우 타갈로그어의 기본어순은 VSO가 된다. 능동태 문장에서 행위자를 주어로 보는 것은 언어연구의 전통에서 자연스러운 일이며 이에 따라 타갈로그어의 기본어순을 VSO로 보는 것은 무리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16c)와 같은 문장에서 어려움에 봉착한다. (16b)와 비교할 때 이 문장에서는 의미상으로 주어가 되어야 할 *titser*(‘teacher’)가 목적어 자리에 와 있기 때문이다.

(17c)는 *ang*을 주격표지로 보는 입장이다. 이 경우 *ang*이 붙은 명사가 주어이기 때문에 자동사의 주어와 타동사의 주어의 표지가 같게 되어 대격언어 방식의 격구조가 되고((16a,b) 참조) 타갈로그어의 기본어순은 VOS가 될 것이다.<sup>12)</sup> Kroeger(1993)은 재귀화, 상승규칙 등 다양한 통사적 실험을 바탕으로 *ang*이 주어표지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Kroeger(1993)의 분석들이 어쨌든 간에 (11)의 예문에서 *dyaryo*(‘newspaper’)의 한정 여부에 따라 주어가 달라진다면, (16b)에서는 핵심성분(S/A/P) 가운데 P가 주어이고 (16c)에서는 A가 주어라는 것은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타갈로그어의 기본어순에 대해 유형론자들 사이에 고민하는 흔적이 많이 보인다. 대격구조를 주장하는 Kroeger(1993)만 하더라도 기본어순에 대해서는 유보적이다. Dryer(2005/2018)는 타갈로그어를 VSO 언어로 분류하고 있는데<sup>13)</sup> Dryer (2007)에서

12) 이 입장에 따르면 (16b)에서 *babae*(‘girl’)에 *ang*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명사가 주어가 된다.

13) 이 책은 인터넷판으로 계속 업데이트 되는데 타갈로그어의 기본어순과 관련해서 2018년 3월 현재 데이터

는 이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동사 전치 언어인 것은 분명하다고 보았다. Hawkins(1983, p. 283, 339 참조)도 기본어순의 유형을 SVO, SOV, VSO, VOS 등 다양하게 분류하면서도 타갈로그어 등 일부 언어에 대해서는 동사 전치형(V-initial) 언어라고만 분류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타갈로그어의 기본어순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제시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가 확보한 원어민 인터뷰 자료는 2가지 점에서 VSO 패턴의 기본어순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제2장의 능력성에 대한 자료들이 이 패턴을 지지한다. 즉 필자들이 원어민에게 해당 영어 문장을 제시하고 타갈로그어로 바꾸어 보라고 요청했을 때 원어민은 별로 주저하지 않고 제2장에서 본 바와 같은 VSO 패턴의 문장을 만들었다. 둘째, 도치소(inverter) *ay*와 관련한 관찰이 이 기본어순을 지지한다.<sup>14</sup> 필자들은 어순의 유형과 관련된 주요 영어 구문들을 작성하여 원어민에게 타갈로그어로 바꾸어 보라고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원어민은 처음에 타갈로그어의 어순을 모두 영어와 똑 같이 작성하였다. 자세히 보니 문장마다 도치소 *ay*가 들어 있었다. 원어민에게 다시 *ay*를 빼고 작성해 보라고 했더니 결과는 모두 VSO 패턴을 보였다. 타갈로그어의 중립적인 어순이 VSO라는 증거일 것이다.

## 5. 그 밖의 유형론적 특징들

위에서 살펴 본 능력성과 ‘필리핀식 구조’ 및 태의 문제 그리고 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기본어순이 타갈로그어의 중요한 유형론적 이슈들이다. 이 소단원에서는 이밖에 타갈로그어에서 이슈가 될 만한 유형론적 특징들에 대해 논구하고자 한다. 앞서 논의한 주제들이 이 언어와 관련된 1차적인 유형론적 이슈들이라고 한다면 본 장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들은 2차적인 이슈들이라고 하겠다. 5.1.의 ‘어휘적 범주의 분화’는 중요한 유형론적 주제이며 이와 관련하여 타갈로그어에서는 명사/동사의 분화가 논란이 되어 있다. 5.2.의 ‘관사와 계사는 어류(word classes)의 발달과 관련한 또 다른 중요한 이슈이다. 5.3.의 ‘시제와 상’도 유형론의 중요한 주제로서 타갈로그어의 중요한 특징을 보이고 있는 영역이다. 본 연구가 원어민 인터뷰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이 범주들이 타갈로그어의 특징적인 면을 보이고 있어서 함께 묶어 정리하였다.

가 달라지지 않았다(<http://wals.info> 참조).

14) 타갈로그어는 기본적으로 동사 전치 언어인데 도치소 *ay*를 이용하여 주어 전치 어순으로 전환할 수 있다 (De Vos 2011, p. 381).

### 5.1. 어휘적 범주의 분화

유형론에서 어휘적 범주(lexical categories)들, 즉 명사, 동사, 형용사의 분화 상태도 중요한 주제이다(Gil, 2000; Baker, 2003). 언어에 따라 이 3가지 범주가 분명히 구별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한국어는 유형론적으로 동사와 형용사가 구분되지 않는 언어로 분류된다(Rijkhoff, 2000).

품사의 분화와 관련해서 타갈로그어는 명사와 동사의 구별이 안 되는 언어로 소개되기도 한다(Himmelman, 1987; Sasse, 1993; Bisang, 2011, p. 281, 292). 이들에 따르면 타갈로그어는 동사에 인칭대명사의 소유격 표지를 붙일 수 있고 명사와 동사가 모두 술어로 쓰일 수 있고 이때 이들의 활용패턴이 동일하다는 것이다(Himmelman, 1987). (18)은 이에 대한 Sasse(1993)의 예문이다. (18a)는 일반 자동사 구문이다. (18b)는 일종의 계사(copula) 구문인데<sup>15)</sup> (18a)를 이처럼 표현할 수도 있다. (18a)의 주어에 붙어 있는 *ang*이 (18b)에서는 동사에 붙으면서 동사의 위치도 (18a)의 주어와 같다.

(18) a. *nagtatrabaho ang lalaki.*

*working REF man*

‘The man is working.’

b. *lalaki ang nagtatrabaho.*

*man REF working*

‘The one who is working is a man.’ (Sasse, 1993, p. 655)

그러나 본 연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만한 것으로 타갈로그어에 명사와 동사의 구분이 없다는 주장은 무리한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Himmelman(1987)은 이 언어의 동사와 명사가 활용패턴이 동일하다고 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타갈로그어는 상(aspect)이 발달해 있는데 이 상표지는 동사에만 붙는다. 즉 동사만 기본형이 있고 활용을 하며 명사는 활용하지 않는다(Schachter & Otones, 1972, p. 66; Kroeger, 1993, p. 15; De Vos, 2011, p. 91-197 참조).

(18)의 예문만 하더라도 동사 *nagtatrabaho* (‘is working’)은 미완료형이고 그 기본형은 *trabaho* (‘work’)이며, 명사 *lalaki* (‘man’)는 활용하지 않는다(예문 (6)-(7)) 참조. (18)과 같이 문장구조를 전환하는 예는 (19a)-(19b), (19c)-(19d)에서도 볼 수 있다. (19a)는 형용사 술어문이고 (19c)는 고유명사가 주어로 쓰이는 자동사 문장이다. (19b,d)는 각각 이들을 (18b)의 형식으로 전환해 놓은 것이다. (19)에서 *natutulog* (‘sleeps’)은 동사 *tulog* (‘sleep’)의 미완료형이며 형용사 *pagod* (‘tired’)와 고유명사는 활용하지 않는다.

15) 계사구문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다시 논의하겠다.

- (19) a. Pagod si<sup>16</sup> Mary.  
       tired CASE Mary  
       'Mary is tired.'
- b. Si Mary ang pagod.  
       CASE Mary CASE tired  
       'Mary is the one who is tired.'
- c. Natutulog si John.  
       sleeps CASE John  
       'John sleeps.'
- d. Si John ang natutulog  
       CASE John CASE sleeps  
       'John is the one who is sleeping.'

계사구조에서 명사가 술어로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명사도 역시 활용하지 않는다 (예문 (24) 참조). 이밖에 동사가 활용하는 예는 위 예문 (15)와 아래 (25)-(27)의 예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5a-d)에서 동사 *alis*('take out')는 태(voice)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활용하고 있으며, (26)은 동사 *kanta*('sing')가 활용하는 예이고 (27)에서는 동사 *magluto*('eat')가 3가지 상에 따라 활용하고 있다. 이에 반해 본 논문에서 제시한 예문에서 다양한 명사를 볼 수 있는데 이들은 격표시로 전치사를 취하고 있을 뿐이며 동사와 같이 활용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면 (6)-(10)의 문장에 명사 *lalaki* ('boy'), *babae*('girl')가 쓰였는데 이들은 어형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다. 위 예문 (15)에도 명사 *babae*('woman'),<sup>17)</sup> *bigas*('rice'), *sako*('sack'), *bata* ('child') 등이 다른 환경에서 쓰였는데 이들 역시 어형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다.

한편 (18)-(19)에서 동사와 형용사가 명사와 동일한 격표지를 취하고 있는데 이는 타갈로그어에서 술어가 명사처럼 격표지 및 주제표지를 수반할 수 있다고 보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동사와 명사의 구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주장이다. 동사를 명사화해서 명사처럼 사용하는 것은 개별언어에서 흔히 있는 일이다.

위에 언급한 대로 Himmelmann(1987) 등은 타갈로그어의 동사와 명사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근거로 동사에도 인칭대명사의 소유격 표지를 붙일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그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20)은 인칭대명사 소유격 표지와 명사가 결합한 예이다. 여기서 *ko*, *niya*가 각각 1인칭, 3인칭 단수 대명사 소유격 형태이다. (21)에서 보는 것처럼 이 소유격 형태가 그대로 동사에도 붙을 수 있다. 이 예문에서

16) 전치사 *si*는 *ang*과 같은 기능을 하며 차이는 관련 명사의 고유명사/보통명사의 차이이다.

17) 타갈로그어에서는 *babae*가 'girl, woman'을 모두 가리킬 수 있고 *lalaki*가 'boy, man'을 가리킬 수 있다.



*pagbisita*, *pagdating*은 각각 기본형 *bisita*(‘visit), *dating*(‘arrive’)에 접사 *pag-*가 붙은 형태이다. 여기서 *pag-*는 일종의 명사화 접사인데 (21)에서와 같이 명사화된 표현에 대명사 소유격 형태가 붙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이것을 명사와 동사가 구분이 안 된다는 근거로 삼기는 어려울 것이다. (20)-(21)의 자료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 언어에 명사와 동사의 구분이 분명하다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 명사는 대명사 소유격과 특별한 형태적 변화 없이 그냥 결합할 수 있지만 동사는 기본형에 접사 *pag-*를 덧붙여야 하기 때문이다.

- (20) a. *tatay ko* (father + my; ‘my father’)  
 b. *tatay niya* (father + his; ‘his father’)
- (21) a. *pagbisita ko* (visiting + my; ‘my visit’)  
 b. *pagbisita niya* (visiting + his; ‘his visit’)  
 c. *pagdating ko* (arriving + my; ‘my arrival’)  
 d. *pagdating niya* (arriving + his; ‘his arrival’)

## 5.2. 관사와 기사

유형론에서 또 관사의 발달 여부와 기사의 사용 여부에 따라 언어의 유형을 구분하기도 한다. 유럽 언어에는 보통 관사가 발달해 있고 아시아 계통의 언어에는 관사가 없다. 관사는 정관사와 부정관사로 나누어지며 이 가운데 어느 한쪽만 발달해 있는 언어도 있다(Dryer, 2018a, 2018b). 타갈로그어에서 *ang*, *si*를 관사로 보는 견해도 종종 관찰된다. 위 예문 (18)에서 Sasse(1993)만 하더라도 *ang*을 관사로 보고 있다.<sup>18)</sup> *Aspillera & Hernandez*(2014)는 제4장의 제목을 ‘The Articles *Si* and *Ang*’이라고 붙이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ang*, *si*는 명사의 기능표시를 위한 전치사이다.

본 연구가 원어민 인터뷰를 통해 관찰한 바에 따르면 타갈로그어는 무관사 언어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이미 위 예문 (11)이 잘 보여주고 있다. 즉 해당 영어 예문에서 관사로 표현되는 명사의 한정성 여부를 타갈로그어에서는 관사로 표현하지 않고 전치사 및 위치로 표현하고 있다. 영어의 전형적인 몇 가지 관사 사용 구문을 타갈로그어와 비교하면 (22)와 같다. 이 예문에서 영어의 명사는 모두 관사를 동반했는데 타갈로그어의 명사는 관사류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 (22) 영어 관사 사용 구문과 타갈로그어 번역문
- a. *Sumisikat ang araw sa silangan.*  
     *rises CASE sun in east.*

18) 예문 (18)에서 ‘REF’는 ‘referential’의 약어로서 ‘정관사’라는 뜻이다.

'The sun rises in the east.'

b. Tumatahol ang aso.

barks CASE dog

'The dog barks.'

c. Nawala kasama ng hangin

gone with CASE wind

'Gone With The Wind'

계사(copula)란 술어가 될 수 없는 어류나 구절을 술어로 만들어 주는 기능을 하는 문법 소이며(Schachter, 1985, p. 55; Pustet, 2003 참조) 한국어의 '-이다', 영어의 'be'-동사, 중국어의 '是'가 여기에 속한다. 어떤 품사가 계사를 필요로 하는가는 언어에 따라 차이가 있다. 영어는 형용사와 명사가 계사를 필요로 하지만 한국어와 중국어는 명사만 계사를 요구한다. 계사의 발달여부와 관련해서 (23)과 같이 3가지 언어 유형이 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는 (23a)에 속한다. 아랍어, 러시아어는 과거형에만 계사가 나타나는 (23b)의 유형이다(정규형, 2008, p. 149; 허성태·임홍수, 2008, p. 139). (23c)는 흔하게 나타나는 유형이 아니다.<sup>19)</sup>

(23) 계사 관련 3가지 언어유형

- a. 특정한 품사에 일정하게 사용하는 언어
- b. 시제에 따라 사용 여부를 달리하는 언어
- c. 무계사 언어

본 연구가 조사한 원어민 인터뷰 자료에 따르면 타갈로그어는 무계사 언어이다(24 참조). (24a,b)는 명사가 술어로 쓰이는 구문인데 계사가 없으며 과거시제에서 쓰이는 *dating*은 'in the past'라는 의미의 부사이지 계사는 아니다. 이때 *dating*은 필수 요소인데 이는 의미상의 이유 때문으로 판단된다. (24c,d)는 형용사가 술어로 쓰이는 구문인데 역시 계사가 없으며 이때 과거시제에서 쓰이는 *dating*은 수의적인 요소이다. (24e)는 장소 부사구 *nasa Maynila* ('in Manila')가 주어와 결합한 구문인데 여기에서도 역시 계사가 쓰이지 않았으며 시제의 구분도 없다.

(24) 타갈로그어의 무계사 구문

a. Guro si John.

teacher CASE John

19) 우리에게 비교적 잘 알려진 언어, 즉 국어,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아랍어 등에는 모두 계사가 나타난다(송경안·이기갑 외, 2008, 제1장 참조).

'John is a teacher.'

- b. Dating guro si John.  
in the past teacher CASE John

'John was a teacher (in the past).'

- c. Masaya si John.  
happy CASE John

'John is happy.'

- d. (Dating) Masaya si John.  
(in the past) happy CASE John

'John was happy.'

- e. Nasa Maynila si John.  
in Manila CASE John

'John is in Manila.' or 'John was in Manila.'

### 5.3. 시제와 상

술어와 관련하여 우리는 흔히 TAM, 즉 시제와 상 그리고 서법을 구별하는데 이 범주들은 개별언어에 모두 나타날 수도 있고 일부만 나타날 수도 있다. 전통적인 문법서나 외국어 교재에서 흔히 그렇듯이 타갈로그어에 대한 문법서나 교재에서도 보통 시제를 구분한다 (Kroeger, 1993, p. 15). 예를 들면 Ramos(1985)는 제17과의 제목을 'Telling Time'이라고 붙였고 Aspillera & Hernandez(2014)도 제28과의 제목을 'Telling Time'이라고 붙이고 있다. 위 예문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언어학 전문가인 Andrew(2007, p. 203)도 접사 '-a-'를 미래시제 표지로 보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타갈로그어에 문법적 시제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상황은 예문 (25a,b)에서 잘 드러난다. 이 두 문장에는 각각 과거와 미래를 나타내는 부사가 쓰였는데 동사의 형태가 같다. 과거시제와 미래시제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예문의 동사 *umulan*의 기본형은 *ulan*('rain')이다.

- (25) a. kapag umulan bukas  
if rain tomorrow  
'if it rains tomorrow'

- b. dahil umulan kahapon  
because rain yesterday  
'because it rained yesterday'

이와 비슷한 예를 우리는 (26)에서도 볼 수 있다. (26a)는 현재진행의 상황이고, (26b)은 과거진행의 상황이며, (26c)는 ‘그녀는 아베 마리아를 잘 부른다’는 습관적 상황을 나타내는 데 이 세 문장에 쓰이는 동사 *kinakanta*의 형태가 동일하다. 이 동사의 기본형은 *kanta* (‘sing’)이다. (25)-(26)의 데이터로 볼 때 우리는 타갈로그어를 무시제 언어라고 할 수 있다.

- (26) a. *Kinakanta niya ang Ave Maria.*  
 sing she OBJ Ave maria  
 ‘She is singing the Ave Maria (now).’
- b. *Kinakanta niya ang Ave Maria nang ako ay dumating.*  
 sing she OBJ Ave Maria when I INV arrived  
 ‘She was singing the Ave Marie when I arrived.’
- c. *Mahusay niyang kinakanta ang Ave Maria.*  
 Beautifully she sing OBJ Ave Maria  
 ‘She sings the Ave Maria beautifully.’

한편 타갈로그어에 대한 전문 연구자들은 보통 이 언어에서 상을 구별한다. 학자에 따라 용어가 다르기는 하지만 이때 상은 완결상(perfective), 미완결상(imperfective), 미도래상(contemplated)으로 나누어진다고(Schachter & Otones, 1972, p. 66; Kroeger, 1993, p. 15; De Vos, 2011, p. 185).<sup>20)</sup> 문법적 시제가 없는 대신에 이 언어는 일반적으로 문장에서 상을 표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27a-c)는 동사 *magluto*(‘eat’)를 이용한 세 가지 상 표현의 예이다(De Vos, 2011, p. 185-186 참조). (27b)는 현재시제와 과거시제를 모두 나타낼 수 있다.

- (27) 타갈로그어 동사 *magluto*(‘eat’)의 3가지 상
- a. *Nagluto ang babae.* (완결상)  
 cook\_compl CASE woman  
 ‘The woman cooked.’
- b. *Nagluluto ang babae.* (미완결상)  
 cook\_uncomp CASE woman  
 ‘The woman is/was cooking.’
- c. *Magluluto ang babae.* (미도래상)  
 cook\_unstart CASE woman  
 ‘The woman will cook.’

20) De Vos(2011, p. 185)는 ‘completed, uncompleted, unstarted’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TAM 범주와 관련하여 Bhat(1999)는 시제중심(tense prominent) 언어, 상중심(aspect prominent) 언어, 서법중심(mood prominent) 언어를 구분한다. TAM 가운데 어느 범주가 모든 문장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느냐가 그 분류 기준이다.<sup>21)</sup> 한국어와 영어는 모든 문장에 시제가 일반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시제중심 언어이다. 아프리카의 서피이어어(Supyire)는 상 중심언어이며 버마어(Burmese)는 서법중심<sup>22)</sup> 언어이다(Bhat, 1999, p. 121-122; Comrie, 1985, p. 50-52). 이 기준에 따르면 타갈로그어는 상중심 언어이다. 즉 타갈로그어는 모든 문장에 상이 일반적으로 나타나며 시제는 따로 표현되지 않는다. (25)-(26)의 현상도 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들은 사건 시점은 각각 달라도 상이 같기 때문에 같은 동사 형태로 표현된 것이다.

## 6. 결론

타갈로그어는 언어유형론의 논의에서 자주 인용되는 언어이다. 능격성, 주어의 지위, 태, 기본어순이 중요한 논점이며 이들은 서로 맞물려 있는 주제들이다. Schachter(1976)은 이 언어에는 주어가 없고 주제/평언의 구별만 있다고 보았다. 이후 능격성의 논쟁에서 타갈로그어는 능격언어로 분석되기도 했고 능격성과 대격성이 공존하는 언어로 분석되기도 하였다. 어쨌든 이 논쟁에서는 주어가 인정된다. Kroeger(1993) 같은 생성론자들은 전치사 *ang/si*를 주어표지로 본다. 그는 타갈로그어를 기본적으로 대격언어로 본 것이다. 이러한 논의에서 어느 것을 기본구조로 보고, 어느 것을 주어표지로 보느냐에 따라 기본어순이 달라진다. 본 연구는 타갈로그어의 기본구조를 능격구조로 보았으며 이 경우 기본어순은 VSO가 된다. 이른바 ‘필리핀식 구조’와 관련하여 태에 대해서도 극단적인 2가지 입장이 대립된다. 능동태만 있고 수동태는 없다는 입장과 다양한 태가 발달해 있다는 입장이다. 본 연구는 후자의 입장을 지지한다.

이밖에 한국어 및 영어와 비교할 때 타갈로그어에 중요한 유형론적 특징들이 있다. 이 언어에 명사와 동사의 구분이 애매하다는 주장이 있는데 본 연구의 조사에 따르면 이 두 어류의 구분은 분명하였다. 타갈로그어에서는 동사만 활용하고 명사는 활용하지 않는다. 무계사 언어는 흔하지 않은 유형인데 타갈로그어는 이에 속한다. 관사와 시제 범주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으나 본 연구의 조사에 따르면 타갈로그어는 무관사, 무시제 언어이다. 타갈로그어는 상 중심 언어이다. 즉 TAM 범주 가운데 상이 모든 문장에 두루 나타난다. 어순이나 대명사 등도 유형론적으로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논의는 차후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21) 어형변화가 없는 중국어는 이러한 분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언어에서는 TAM 가운데 어느 범주도 모든 문장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22) 서법중심 언어는 모든 문장에서 현실(realis)과 비현실(irrealis)을 동사의 형태로 구분한다.

한편 국내의 다문화적 상황과 관련해서도 본 연구의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이 연구결과는 무엇보다도 문화 상대주의 및 언어 상대주의적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말해 준다. 타갈로그어는 한국어와는 물론 우리에게 익숙한 영어와도 너무 다르다. 이는 우리가 국내에 거주하는 타갈로그어 모어 화자, 즉 필리핀인들에게 언어적으로 특별히 관대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언어 구조상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만일 한국인이 그들의 타갈로그어를 배운다면 그에 못지않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보면 필리핀인들이 한국어를 배우거나 사용할 때 어느 부분에서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오류를 범하기 쉬운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20세기 초 한국에서 활동한 선교사 Moore는 “지금까지 나는 한국인을 다소간 멸시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동양은 동양이고 서양은 서양이니 이 양자 사이에는 유사성이나 공동의 광장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 왔다.”고 고백한 적이 있다.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스스로가 이와 비슷한 오류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 볼 일이다.

## 참고문헌

- 송경안. (2008). 격의 유형론. 송경안, 이기갑 외. *언어유형론 2* (pp. 9-53). 서울: 월인출판사.
- 송경안. (2011). *독일어의 새로운 이해*. 개정판. 서울: 신아사.
- 송경안, 이기갑 외. (2008). *언어유형론 1*. 서울: 월인출판사.
- 윤경원. (2012). 한국어와 타갈로그어 대조연구 -형태론적 특징과 어순을 중심으로-. *겨레어문학*, 48, 301-326.
- 정규영. (2008). 아랍어의 품사. 송경안, 이기갑 외. *언어유형론 1* (pp. 146-157). 서울: 월인출판사.
- 진남택, 손재현 역. (2013). *언어학*. 서울: 제이앤씨. (風間喜代三·上野善道·松村一登·町田健. (2004). *言語學*.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 허성태, 임홍수. (2008). 러시아어의 품사. 송경안, 이기갑 외. *언어유형론 1* (pp. 134-145). 서울: 월인출판사.
- Andrew, A. (2007). The major functions of the noun phrase. In T. Shopen (Ed.), *Language topology and syntactic description. Vol. 1* (pp. 132-223).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Aspillera, P. S., & Hernandez, Y. C. (2014). *Basic Tagalog for foreigners and non-Tagalogs*. North Clarendon: Tuttle Publishing.
- Baker, M. (2003). *Lexical categori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hat, S. D. N. (1999). *The Prominence of tense, aspect and mood*. Amsterdam /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Bisang, W. (2011). Word classes. In J.-J. Song (Ed.), *The Oxford handbook of linguistic typology* (pp. 280-302).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lake, B. (1994). *Cas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hurchward, C. M. (1953). *Tongan gramma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Comrie, B. (1985). *Tens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mrie, B. (2018). Alignment of case marking. In M. Haspelmath, M. S. Dryer, D. Gil, & B. Comrie (Eds.), *The world atlas of language structures*<sup>23)</sup> (Chap. 81).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De Vos, F. (2011). *Essential Tagalog grammar: A reference for learners of Tagalog*. Laguna/Berlin: Learning Tagalog.<sup>24)</sup>
- Dixon, D. M. W. (1994). *Ergativ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ryer, M. (2005/2018). Order of subject, object and verb. In M. Haspelmath, M. S. Dryer, D. Gil, & B. Comrie (Eds.), *The world atlas of language structures* (pp. 330-333).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Dryer, M. (2007). Word order. In T. Shopen (Ed.), *Language typology and syntactic description. Vol. 1* (pp. 161-131).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ryer, M. (2018a). Definite articles. In M. Haspelmath, M. S. Dryer, D. Gil, & B. Comrie (Eds.), *The world atlas of language structures* (Chap. 37).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on-line version).
- Dryer, M. (2018b). Indefinite articles. In M. Haspelmath, M. S. Dryer, D. Gil, & B. Comrie (Eds.), *The world atlas of language structures* (Chap. 38).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on-line version).
- Gerdts, D. (1988). Antipassives and causatives in Ilokano: Evidence for an ergative analysis. In R. McGinn (Ed.), *Studies in Austronesian linguistics* (pp. 295-321). Athens: Ohio University Press.
- Gil, D. (2000). Syntactic categories, cross-linguistic variation and universal grammar. In P. Vogel, & B. Comrie (Eds.), *Approaches to the typology of word classes* (pp. 173-216). Berlin: Walter de Gruyter.
- Hawkins, J. (1983). *Word order universals*. New York: Academic Press.

23) 이 책은 2005년에 인쇄본으로 출판되었다가 이후 온라인상에서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다. 2005년 인쇄본에는 Comrie(2018)의 내용이 없고 2018년 3월 현재 온라인판에는 있다.

24) 이 책은 출판지를 정확히 확인하기가 어렵다. Laguna/Berlin는 저자 연락처의 주소지이다.

- Himmelman, Jr., N. (1987). *Morphosyntax und Morphologie - Die Ausrichtungsauffixe im Tagalog*. München: Wilhelm Fink.
- Keenan, E., & Dryer, M. (2007). Passive in the world's languages. In T. Shopen (Ed.), *Language typology and syntactic description*. Vol. 1. Second edition (pp. 325-361).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roeger, P. (1993). *Phrase structure and grammatical relations in Tagalog*. Stanford: CSLI Publications.
- Li, C., & Thompson, S. (1976). Subject and topic: a new typology of language. In C. Li (Ed.), *Subject and topic* (pp. 457-490). New York: Academic Press.
- Palancar, E. (2009). Varieties of ergativity. In A. Malchukov, & A. Spencer (Eds.), *The Oxford handbook of case* (pp. 562-571).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Payne, T. (1982). Role and reference related subject properties and ergativity in Yup'ik Eskimo and Tagalog. *Studies in Language*, 6(1), 75-106.
- Perlmutter, D. M., & Postal, P. (1983). Toward a universal characterization of passivization. In D. Perlmutter (Ed.), *Studies in relational grammar* (pp. 11-29).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Plank, F. (1979) (Ed.). *Ergativity*. New York: Academic Press.
- Pustet, R. (2003). *Copulas: Universals in the categorization of the lexic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Quirk, R., Greenbaum, S., Leech, G., & Svartvik, J. (1985). *A comprehensiv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London: Longman.
- Ramos, T. (1985). *Conversational Tagalog*.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 Rijkhoff, J. (2000). When can a language have adjectives? In P. Vogel & B. Comrie (Eds.), *Approaches to the typology of word classes* (pp. 217-257). Berlin: Walter de Gruyter.
- Sasse, H.-J. (1993). Syntactic categories and subcategories. In J. Jacobs, A. von Stechow, W. Sternefeld, & T. Vennemann (Eds.), *Syntax: An international handbook* (pp. 646-685). Berlin: Walter de Gruyter.
- Schachter, P. (1976). The subject in Philippine languages. In C. Li (Ed.), *Subject and topic* (pp. 491-518). New York: Academic Press.
- Schachter, P. (1977). Reference-related and role-related properties of subjects. In P. Cole & J. Sadock (Eds.), *Syntax and semantics*. Vol. 8. (pp. 279-306). New York: Academic Press.
- Schachter, P. (1985). Parts of speech system. In T. Shopen (Ed.), *Language typology*



- and syntactic description. Vol. 1. (pp. 3-61).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chachter, P. (1996). The subject in Tagalog: still none of the above. *UCLA Occasional Papers in Linguistics 15*.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Schachter, P., & Otones, T. (1972). *Tagalog reference grammar*.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Siewierska, A. (1984). *The passive: A comparative linguistic analysis*. London: Croom Helm.
- Siewierska, A. (2005). Passive constructions. In M. Haspelmath, M. Dryer, D. Gil, & B. Comrie (Eds.), *The world atlas of language structures* (pp. 434-437).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송경안

61186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독일언어문학과 교수  
전화: 062-530-3176  
이메일: kasong@chonnam.ac.kr

#### 이은하

61186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한국어교육학 협동과정(박사과정) 대학원생  
전화: 062-530-3188  
이메일: 2point@hanmail.net

Received on March 22, 2018

Revised version received on October 22, 2018

Accepted on December 31, 2018